

제주시를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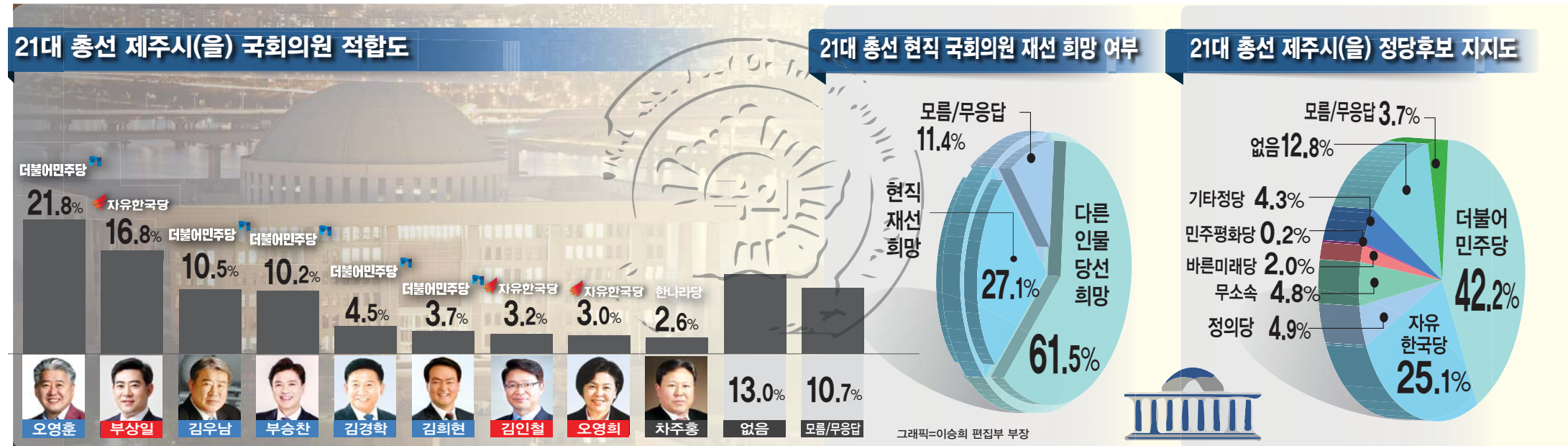
현역 오영훈 선두 속 재도전 부상일 바짝 추격

적합도 오 21.8%·부 16.8% 기록
부동층 23.7% 주요 변수로 부상
응답자 61.5% "다른 인물 희망"
정당 지지율 민주당 42.2% 달해
한국당 25.1%·정의당 4.9% 등 순

제주시를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부상일 변호사가 바짝 추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 선거구에서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적합도=차기 제주시을 국회의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영훈 의원이 21.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부상일 변호사 16.8%,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전 의원 10.5%,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10.2%,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도의원(도의회 운영위원장) 4.5%,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도의원(도의회 부의장) 3.7%, 김인철 자유한국당 중앙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3.2%, 오영희 자유한국당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3%, 차주홍 한나라당 부총재 2.6%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13%, 모름·무응답은 10.7% 등 부동층도 23.7%에 달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를 보면 오영훈 의원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20대(19세 포함) 12.4%, 30대 26.1%, 40대 32.4%, 50대 26.3%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부상일 변호사는 60대 이상에서 29.9%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5.9%, 19.7%로 오영훈 의원 다음으로 많이 뽑혔다.

지역별에서도 오영훈 의원이 일도·이도·건입동에서 25.1%, 나머지 지역에서 19.1%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상일 변호사가 각각 19.1%, 15%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1.4%)과 무당층(22.3%)에서는 오영훈 의

원이 가장 높은 반면, 부상일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4.1%), 기타 정당(23.1%), 무소속(13%)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또 원희룡 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27.2%) 오영훈 의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31.5%)는 부상일 변호사가 적합도 비율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주민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22.4%), 불만족(21.9%) 모두 오영훈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현직 국회의원 재선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을 훌쩍 넘는 61.5%가 다른 인물이 당선되기를 희망했고, 오영훈 의원의 재선을 바라는 경우는 27.1%에 그쳤다.

▶정당 후보 지지도=제주시를 선거구 유권

자에게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한국당 25.1%, 정의당 4.9%, 무소속 4.8%, 바른미래당 2%, 민주평화당 0.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4.3%, '없음'은 12.8%, '모름·무응답'은 3.7%로 부동층이 20.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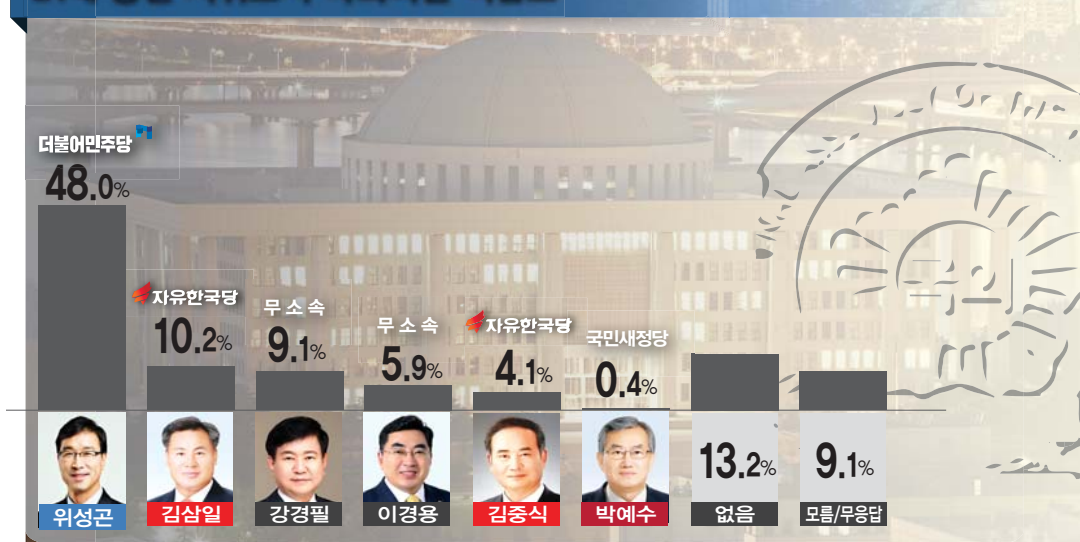
연령대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60대 이상에서 42.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도·이도·건입동에서 38.5%, 나머지 지역에서 45.2%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자유한국당이 각각 27.8%, 22.9%로 추격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시를 선거구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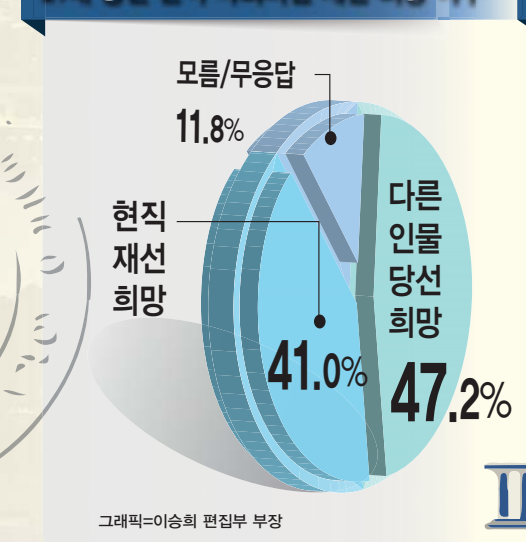
구분	조사 완료	목표 할당	가중값			
	시료수(명)	비율(%)	시료수(명)	비율(%)	배율	
전체	506	100.0	500	100.0	0.99	
지역	일·이도/건입동	205	40.5	221	44.2	1.08
	중동부 내륙/제민/음면	301	59.5	279	55.8	0.93
연령	만 19-29세	108	21.3	89	17.8	0.82
	30대	79	15.6	84	16.8	1.06
	40대	77	15.2	104	20.8	1.35
	50대	110	21.7	98	19.6	0.89
	60세 이상	132	26.1	125	25.0	0.95
성별	남성	297	58.7	249	49.8	0.84
	여성	209	41.3	251	50.2	1.20

일·이도/건입동: 이도1·2동, 일도1·2동, 건입동
중동부: 화북동, 아라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동, 구좌읍, 우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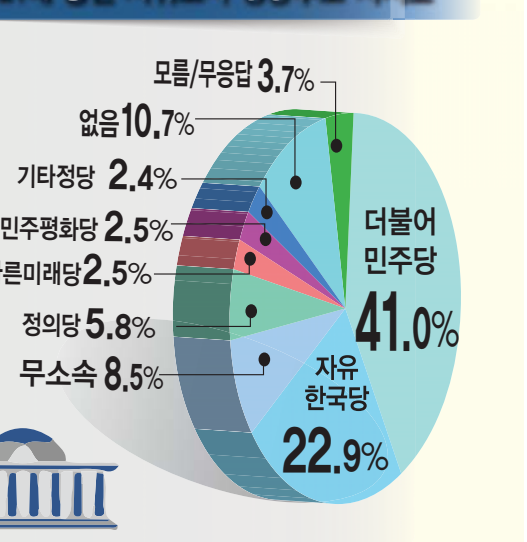
21대 총선 서귀포시 국회의원 적합도



21대 총선 현직 국회의원 재선 희망 여부



21대 총선 서귀포시 정당후보 지지도



>>2면에서 계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8.7%가 현직 재선을 희망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83.1%는 다른 인물이 당선되길 원한다고 답변해 정당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당 후보 지지도=서귀포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묻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자유한국당 22.9%, 무소속 8.5%, 정의당 5.8%, 바른미래당 2.5%, 민주평

화당 2.5%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의 도정수행평가와 관련 정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57.2%에 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12.1%, 정

의당 6.6%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정읍·안덕면 45.1% 등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각각 22%, 23.3%, 19.6%, 28.6%로 뒤를 이었다. 송은범기자

>>이번 여론조사는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등 도내 언론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5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갑 선거구 511명, 제주시을 선거구 506명, 서귀포시 선거구 510명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무선(유선 50%, 무선 50%) 자동응답 및 전화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했다. 표본 추출은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됐다. 응답률은 5.2%(총 통화 2만9177명 중 1527명 응답 완료-제주시갑 5%, 제주시을 4.8%, 서귀포시 6%)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제주시갑 ±4.3%포인트, 제주시을 4.4%포인트, 서귀포시 ±4.3%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더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라며 제주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世紀産業株式會社 **世紀레미콘株式會社**

(본사) 제주시 고전길 6 (이도일동) 757-6866~7 (본사) 제주시 고전길 6 (이도일동) 753-5911
(공장) 제주시 고내로 13길 22 799-1561, 0045, 3058 (공장) 서귀포시 소보리당로 16빌딩 125(상예동) 738-2632~3

